

2010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엘리엇의 교육철학을 배경으로 한 음악 감상 지도방안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배 하 나

엘리엇의 교육철학을 배경으로 한 음악 감상 지도방안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The Education Guidance Method of Music Listening
Based on the Education Philosophy of Elliott
:based on third grade in middle school

2010 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배 하 나

엘리엇의 교육철학을 배경으로 한 음악
감상 지도방안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서영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배 하 나

배하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한 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지 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 영 화 인

2009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2
II. 음악 감상교육의 이론적 고찰	5
1. 음악교육의 이론적 고찰	5
2. 음악 감상 교육의 이론적 고찰	9
III. 엘리엇의 음악교육철학	19
1. 엘리엇의 음악교육철학의 배경	19
2. 주요전제	20
3. 엘리엇의 음악교육	26
IV. 엘리엇의 교육철학을 적용한 음악 감상 지도 방안	31
V. 결론 및 제언	43
참 고 문 헌	45

표 목 차

<표 1>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감상 수업 지도안	16
<표 2> ‘베토벤 제 5 번 교향곡’ 감상 수업 지도안	17
<표 3> 동양민요 ‘소매꽃’, ‘코끼리 바나나’ 감상 수업 지도안	33
<표 4> ‘헨델의 메시아’ 감상 수업 지도안	36
<표 5>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감상 수업 지도안	39

A B S T R A C T

The Education Guidance Method of Music Listening Based on the Education Philosophy of Elliott : based on third grade in middle school

Ha-Na Bae

Advisor : Prof. Young-Hwa Seo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Music listening is the essential part which is unconsciously performed in the society as well as school education. As much, people encounter many opportunities to listen to music. However, it is doubt whether music listening is conducive to the growth of musical sense. The education field of music listening tends to be regarded as unimportant because people usually listen to the music without preparation.

Culture has the great influence on the emotion of the teenagers if they accept it in the adolescent period which is the time of personalty formation without any constraint. In this sense, school education is noteworthy because school plays the role of the footing for students, making them step forward to the society. Therefore, teachers should make an effort to do right education of art for helping students

understand culture rightly. The education of music listening has remained in same education methods and forms for a long time. Many music teachers are still hesitant to accept new education way of music listening. However, since music is different from the subject like mathematics that has the fixed formula, many changes should be given while music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in the class. This research attempted to do research for changing the stereotyped education method in order to encourage students to take an interest in music.

This research inquired into preceding researches through reviewing many books and academic papers. It tried to apply the 'Making music by Eliot' to the class. Music listening is not confined to listening activity, but it is extended into practice of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philosophy of Eliot. Eliot is a scholar who claimed practice oriented music education philosophy while criticizing the 'aesthetic music education philosophy' by Reamer. Eliot argued that music is a way of understanding other cultures around the world based on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in addition to 'Making music'. Investigating the theories of Eliot, music is in the process rather than result. This research combines Eliot's theoretical basis with the education of music listening. That is, music is not confined to the activity of listening. Various music activities can be performed with music listening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sinc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theory accepts and comprehends the music of various races, it will help students deepen the love of their national music and recognize the identity and uniqueness of other races' music as well.

Currently, the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is on the decline in the

education conditions of Korea due to the emphasis on the education for entrance examination. Researches on the new education methods are required in this situation. The repetitive process of trials and errors in applying education methods, which are different from existing method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Right experience in music education will be the foundation for the growth of the youth. It would be difficult for students to accomplish musical development independently. For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students, teachers should provide students with the foundation of right experience. Therefore, self-examination or reflection of teachers who play a prominent role in the music education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methods in music 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학교 음악교육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그들의 타고난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음악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¹⁾ 이러한 교육목표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나라 음악교육이 얼마만큼 중요시되고 가치 있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악학습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영역과 활동 영역이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의 성격에 대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일부,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매체, 개인의 감정 상징화의 매체 그리고 심미적 경험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산물이자 문화의 한부분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인류의 문화적 자산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음악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이고, 우리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며 교육시켜야 할 한 부분인 것이다.

음악교육에서 음악 감상이라는 분야는 교양을 높이기 위한 음악적 지식의 함양을 위한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 감상이 우리들 전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뜻은, 우리들 인간으로 하여금 좁고 이기적인 인간성으로부터 전 인류적인 인간성으로 이끌고 또 넓혀 갈 수 있다는 점에 있다.³⁾

엘리엇은 1995년 『Music Matters』 라는 책을 통해서 음악교육 철학 분

1) 최은혜, 「음악 감상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음악 교과내용 중 서양 음악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 1
2)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1999, pp.100-101
3) 정세문, 「음악감상교육」, (서울: 문영문화사, 1964), p. 12

야에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한 사람이다.⁴⁾ 그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교육 철학인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의 대안으로 행위와 맥락을 강조한 ‘실천주의 음악교육철학’을 제시하였다.

그에 앞서 리머는 음악의 본질과 가치가 음악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표현성 또는 표현적 특질이라고 여기며 음악교육의 목적은 이러한 본질과 가치를 지각하고 느끼는 심미적 경험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⁵⁾ 이를 비판하고 나온 것이 엘리엇의 주장인데 엘리엇은 음악의 본질이 음악 작품 속에 단순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작품을 만드는 주체에 의해 일어나는 일종의 음악적 행위와 과정 자체라고 주장하였고, 음악교육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개인이 조직하고 설정한 음악적 실제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엘리엇에 의하면 ‘음악하기’와 ‘음악 감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⁶⁾ 이 말의 의미는 음악활동이라는 것은 음악 감상을 포함하는 것이며, 음악활동을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음악 감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음악교육과 음악 감상 교육의 목적과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 엘리엇을 중심으로 ‘음악하기’를 음악 감상 수업안을 구성하는 아이디어로 제공하고 적용해서 새로운 음악 감상 수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많은 문헌들을 연구하는 방법에 의존했다. 문헌 연구는 음악교육과 음악 감상 그리고 엘리엇의 교육철학과 관련된 선행 연구논문, 단행본

4) 권덕원 외, 「음악 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5), p. 79

5) 신유진, 「음악하기 (Music) 고찰을 통한 음악 감상 수업안 연구: D. Elliott의 Music Matters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p. 3

6) Elliott. David J,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3-46

등을 포함한다. 먼저 음악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 감상의 목표와 필요성 단계, 유의점 등을 알아보고 엘리엇의 실천주의 교육철학의 이론에 근거한 음악 감상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엘리엇의 철학에 근거한 음악 감상의 수업설계안을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그 연구 방법으로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음악 감상의 연구 보고를 근거로 현 음악 교육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음악 감상 교육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둘째, 음악 감상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봄으로써 해서 음악 감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셋째, 엘리엇의 『Music Matters』와 그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통해 엘리엇의 실천주의 음악교육철학을 연구한다. 넷째,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활동중심의 음악과 교수-학습에 부합되도록 엘리엇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인 '음악하기'와 '다문화주의'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음악 감상 교육의 효율적인 수업 방법을 연구하여 새롭게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들이 따른다. 첫째, 본 연구는 엘리엇의 음악교육 철학을 토대로 다양한 차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음악적 본질과 의미를 교육적으로 유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음악 감상 수업안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다른 연구와 같이 수치와 통계로 그 결과를 알아 낼 수 없으며 교사가 각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교육적 효과와 반응들은 수업을 해 본 교사들만 그 결과를 진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즉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안을 구성하였으나 연구자의 감상수업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음악 감상 수업의 내용을 질적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과서에 실린 음악 감상의 많은 악곡들을 다루지 않아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게 악곡을 선정해서 음악 감상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새롭게 개정된 2007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기초하여 연

구되어야 하지만, 교과서가 출판되지 않는 시점에서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II. 음악 감상교육의 이론적 고찰

1. 음악교육의 이론적 고찰

가. 음악교육의 성격과 목적: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음악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음에 의해서 표현하는 예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악적 예술 활동은 사람들에게 음을 매개체로 창의적 표현을 하도록 이끄는 자아를 실현함과 동시에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⁷⁾

음악은 인간 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매개체로 사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가고 지속되어 진다. 음악은 다른 예술들과는 달리 소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술과는 구분되어 지는 음악만의 고유의 미를 추구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는 음악의 본질적 의미는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로, 예로부터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 왔으며, 사람은 음악활동을 통하여 미적 경험과 즐거움을 얻고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가능성과 삶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 놓여있는 음악의 실존적 가치에 있다. 즉, 점차적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음악은 예술로서의 독자적인 존재성보다는 현실 안에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음악이란 교과를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7) 임미경 외 2인 공저,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벨로체, 2002), p. 9

8) 위의 책, p. 10

에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음악성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음악 경험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탐구하고 연마하도록 하는 한편,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의 목적을 살펴보면 음악교과는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하도록 하고,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애호심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목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악곡과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미적능력과 음악의 기본 능력 배양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해보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의 외재적 가치를 특히 강조함으로써 음악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음악 교육의 필요성

학교에서는 왜 음악을 하나의 교과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음악 역사상으로 볼 때 음악교육에 대하여 기록 된 것을 보면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악교육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음악교과는 그 시대별로 상황에 맞게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쓰임 받아왔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일부 몇몇 교사들은 음악교과의 목적을 왜곡시켜 노래

를 잘 부른다거나,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상을 받는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러한 결과적인 것들이 음악교육의 목적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수적인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음악 활동의 본질적인 측면이 약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우리의 현실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들이 입시에서 강조되면서 음악교육이 더욱 침체되고 위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음악교육자들은 음악 활동의 명백한 가치를 제시하고, 심미 교육의 일부로서의 음악 교육의 고유한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음악 교육의 위치를, 위축되기 이전보다 오히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삶의 본질, 음악 예술의 심미적 가치 및 그 본질에 근거한 확신이었다. 9)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교육이 일반학교에서 왜 추구되고, 교육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인간의 전인적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개인마다 무한히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학교 교육은 이러한 인간을 학생 개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더욱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면서 전인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과를 가르친다. 신체적 발달을 위해 신체적 활동을 시키고, 지적 가능성의 개발을 중시한다. 또한 논리적인 사고를 수반하는 활동들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는 활동과 도덕적 심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의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한 계발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¹⁰⁾ 음악과 미술을 비롯한 예술 교과를 통해서 생활에서 쉽게 느끼지 못한 예술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끄집어냄으로써 학생들의 심미적 가능성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다.

9)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p. 100

10) 위의 책, p. 102

두 번째로 인간과 심미적 경험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삶은 주위 환경에 긴밀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되면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삶의 조건이나 질에 있어서 결함을 지니게 된다면 환경에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한 부적응을 위해서 인간은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음악학자들은 불균형으로부터 균형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동 작용이야말로 조직적이고 활기찬, 놀랄만한 적응이며, 이것이 “삶의 흐름결(rhythm)을 통해 이루어지는 균형과 조화의 시초”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Dewey의 “일상의 경험이 바로 심미적인 경험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지지한다.¹¹⁾

세 번째로 음악은 우리 생활에서 어디에나 있는 환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음악을 듣게 된다. 이 말은 즉, 음악은 우리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삶의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학생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 곳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면, 학생 자신이 그 환경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음악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매체는 음악이다. 음악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을 차지한다. 어느 사회이건 음악을 빼놓고 역사를 말할 수는 없다. 음악은 그 시대의 문화, 사상, 가치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띄고 인간의 삶에 한 부분을 차지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음악교과서를 접하다 보면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음악 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해 보고 각 나라의 음악 문화의 음악적 특징과 그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 음악은 개인의 감정 상징화의 매체이다.¹²⁾ 음악이란 인간만이

11)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p. 103

12) 강혜경, 「효과적인 음악 감상수업을 위한 음악교과서 연구 분석: -7학년 9종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 6

가질 수 있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해 낼 수 있는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징체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더욱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 할 수 있게 하며, 의사소통을 더욱 더 원활하게 해줄 뿐 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보존 할 수 있게끔 한다. 인간의 감정을 나타 낼 수 있는 언어적인 형태들은 감정을 표현해 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음악의 예술적 활동은 다양한 지적 능력을 요하는 행위로서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고, 궁극적으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끈다.

2. 음악 감상 교육의 이론적 고찰

가. 음악 감상 교육의 역사와 정의

18세기 말경에 음악학자인 바니(C. Burney)는 작곡이나 연주 이외에 “음악을 향수한다, 감상한다”라는 개념에서 “감상”이란 음악을 애호하는 일반 대중에게 음악을 이해시키기 위한 일종의 계몽 교육 운동이라고 생각했다.¹³⁾ 그 후 작곡자 겸 평론가인 네겔리(H. G. Nageli)가 1826년 강연집을 출판한 데에 이어 평론가 패티스(F. J. Fetish)가 1830년에 「음악은 만민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감상을 위한 자료를 출간했다. 멘델스존, 슈만, 쇼팽 등이 활동한 낭만과 시대에는 귀족의 살롱이나 가정에서 연주되던 음악들이 음악 회로 나아가 일반 대중들에게 음악 감상의 기회가 넓혀지게 되었다.

감상이 음악학습 과정의 일부로 채택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매튜즈(W. S. Mathews)에 의해 받아들여

13) 송진아, 「효과적인 음악 감상 지도법 연구 : 고등학교 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15

졌는데 그는 「음악의 이해」라는 저서를 통해 “피아니스트는 그 연주에 앞서 널리 음악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세렛티(T. W. Surette)와 메이슨(D. G. Mason)은 「음악운동」이라는 책을 일반대중이나 음악 강연회 수강생들을 위하여 발간하였다.

미국의 클라크여사는 1909년 학교수업의 감상지도를 최초로 선보인 사람이다. 그녀의 감상지도 수업은 최초로 선보인 만큼 그 후 많은 수업에 반영되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 음악 감상 교육에 자극 받은 영국에서 맥피어슨(S. Macpherson)이 음악 교육 감상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역에 퍼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음악교육에 있어 감상은 예술작품을 음미하고 그 심미적 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체험, 즉 심미적 특성이나 가치를 음미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음악 감상은 음악을 들으므로 해서 그 음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총괄하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음악 감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음악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형식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음악에 대해 인식적인 감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현재 평가되어 지고 있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영역들은 개별적이면서도 서로 연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감상영역은 능동적이기 보다는 체계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감상영역에서 선정되는 음악은 교사의 개인적인 생각과 관심으로 선정되기 보다는 학습자들에게 더욱 많은 경험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 폭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악곡들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감상교육은 그저 음악을 들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교사의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체험을 통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음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음악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음악 감상 활동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음악 감상이라는 활동이 곡을 만든 작곡가와 듣는 청중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곡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듯 음악 감상이 음악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본 연구자는 알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음악 감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음악 감상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감상 수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음악 감상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된다. 가벼운 기분으로 음악을 즐기면서 듣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감상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음악을 무의식중에 감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듣는 음악 감상과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 감상 학습 활동과는 엄격하게 다른 의미로 쓰인다. “음악 교육은 감상으로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감상활동이란, 음악 교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어느 영역의 어떠한 활동치고 감상이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음악 감상은 그 영역이 넓고 가치가 큰 것이다. 14)

선행 연구 결과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음악회를 가면 많은 수의 청소년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연주의 한 곡 정도가 연주가 끝나면 그 많던 청소년들이 절반 이상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한 곡 연주되는 시간 중에도 연주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 정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15)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러한

14) 정세문, 「음악 감상 교육」, (서울: 문영문화사, 1964), p. 9

15) 백영미,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청소년 음악 감상의 효과적인 지도에 관한 연구 : 중학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 29

클래식 공연이 대중음악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문화가 창조될 때에는 그 전에 있었던 문화를 기반에 두고 재창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음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을 우리가 멸시하게 된다면 결국 음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클래식을 더욱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클래식 음악 감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체계적으로 음악 감상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음악 감상을 시키려면 제일 먼저 학습시켜야 할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연주회에 참석하거나, 음악을 들을 기회가 생겼을 때 음악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태도를 가르쳐야 함이 분명하다.

음악 감상 교육의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음악 감상은 인간이 태어나서 자칫 잘못하면 생길 수 있는 좁고 이기적인 인간성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목표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습자들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전인적인 인간을 만들기보다는 지식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인간적인 사람보다는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는 자가 더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음악 감상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한낱 오락물로 보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도 그런 현실에 한 몫 한 것임에 분명하다.

두 번째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설을 읽고, 그림을 보면 그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듯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을 끄집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음악 감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활동임에는 틀림이 없다.¹⁶⁾ 감상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음악에 더 근접함으로써 보다 더 넓은 상상의 이미

16) 정세문, 「음악 감상 교육」, (서울: 문영문화사, 1964), p. 15

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유롭게 전환시키는 사고력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창의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청소년기에 이러한 예술 감상을 많이 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창의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음악에 길들여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점수를 준다는 이유로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회에 보내는 것보다 왜 음악 감상을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를 해주고, 음악의 미적 아름다움을 마음으로부터 즐길 수 있는 심미적 태도와 풍부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도록 하는 것이 음악 교육의 최대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 음악 감상의 단계와 악곡의 선정

감상 지도는 학습자가 음악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때문에 음악 감상 교육을 할 때 음악을 잘 감상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도를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감상은 사실상 주관적인 것에 기원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거나 단계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 하지만 어느 교육에서나 체계적인 단계가 있듯이 본 연구자도 음악 감상에 단계를 나눠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음악은 감상자가 먼저 듣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단계에서는 음악의 색채나 리듬, 가락, 하모니 등의 감상했을 때 바로 청각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오는 음악의 미를 감상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감상자의 정서적인 반응이 주체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해하는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받아들였던 음악을 악곡의 형식, 악기의 편성, 내용 등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감상자가 이제까지 체험하고 쌓아두었던 음악적 지식을 모두 끄집어내어 비판하고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계 속에 거의 대부분의 음악 수업에서 감상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은 사실 상상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쇼팽이나 베토벤이 음악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작곡가들은 우리에게 음악이라는 설계도만 그려 준 것이고, 연주자들은 작곡가들이 준 설계도를 따라 시공을 하고, 이 설계의 최종단계에는 언제나 감상자들이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 속에 음악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콜링우드(Collingwood)는 음악을 감상한다(listening)는 것을 단지 감각적 체험으로서의 듣는다(hearing)는 것과 구별하였는데, 듣는다(hearing)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감상한다(listening) 즉, ‘음악 聽’은 듣는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 음악을 재구성해 가는 ‘전체적 상상체험’이라고 설명하였다.¹⁷⁾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창조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상자 또한 음악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음악 감상 교육을 할 때 악곡을 선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음악 감상에 있어서 좋은 음악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 특정음악이 다른 음악보다 낫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형식이나 곡의 색채나 음악적 특성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좋은” 음악에 대한 전통적 관점 중 하나는 그 음악에 내재된 가치들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다.

악곡은 ‘new known(새로운 앎)’에 초점을 두는 학습목표와 연관을 지어 선정되어야 한다.¹⁸⁾ 교사가 악곡을 선정할 때에는 학생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음악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지, 곡의 길이나 수준이 그 시기의 학습자들에게 적절한지, 악곡을 선택함에 있어서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곡들을 학습자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의 시기에 따라 집중력의 정도가 다르고 교사의 전공이 개입되어 감상하는 곡목이 정해진다면 학습자들의 다양한 음악 감상의 기회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

17) 김승일, 「클래식 음악 알아듣기」, (서울: 예일출판사, 2007), p. 20

18) 석문주 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6), p. 144

다.

교사가 음악을 선정 할 때는 학생들이 처음 들어 생소할 만한 음악을 선정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음악은 학생들이 음악 감상을 하였을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들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듣는 사람이 즐겁고 따뜻한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한다.¹⁹⁾

음악 감상을 할 때 우선 곡을 선택하면 학습자들이 때에 따라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물론 그 곡에 대해 알고 있는 학습자들도 있겠지만, 미리 조사를 해서 곡에 대한 내용이나 배경을 알게 되면 그 곡에 대해 학습자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기 때문이다. 음악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그 음악과 친숙해지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느낌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감상의 방법이다. 그 후에는 학습자들끼리 생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곡의 느낌을 각자 알아보고 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서로 토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도 알아보고 음악에 대해 개방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 학습자들 또한 자신들이 익숙한 곡들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것들은 멀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음악 감상 교육이다. 어떻게 해서 학습자들에게 음악을 흥미롭게 접근시키며 바람직한 감상태도를 지닌 활발한 참여자가 되게 할지는 교사가 가르쳐야 할 몫이다.

19) Helen L. Bonny 외 1인, 「음악과 마음」,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 p. 164

라. 감상위주의 수업 지도안

<표 1>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감상 수업 지도안

단 원	감상(서양음악사)	차시분량	1/1	시간	45
학 습 목 표	1. 악곡의 구조를 파악하고, 가락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듣는다. 2. 교향곡의 성격과 연주 형태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듣는다.				
제제곡	베토벤 교향곡 제 5 번 ‘운명’ (두산 p.25)				
준비물	멀티미디어, 피아노, CD 플레이어				
활동 내용 및 방법	교사·학생 활동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점검 :학생들은 교과서를 준비하고 바르게 앉아 인사한다. - 전시 학습곡 가창 : 바른 자세로 ‘월계꽃’을 가창한다. - 본시 학습목표를 제시 : 본시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 곡 감상 : 학습할 곡을 주의 깊게 듣는다. - 곡 분석 : 학습자와 함께 교사는 곡을 이해하기 쉽게 소나타 형식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분석해 본다. - 과제 발표 : 전시에 미리 내준 과제 발표를 통해 고전시대의 모습을 그려본다. - 곡 감상 : 한번 더 감상을 하면서 교향곡의 성격과 연주 형태를 파악하면서 듣는다. - 감상느낌발표 				
평가 기준	1. 1악장에서 나오는 두 개의 주제를 알아내고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가? 2. 감상할 때 바른 자세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가?				

<표 2> ‘베토벤 제 5 번 교향곡’ 감상 수업 지도안

단 원	감상(서양음악사)	차시분량	1/1	시간	45
학 습 목 표	1. 다악장 형식의 짜임과 협주 형태의 음향 특징을 파악하면서 듣는다. 2. 북유럽 특유의 향토색을 느끼고, 바른 감상 태도를 알아본다.				
제제곡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준비물	멀티미디어, 피아노, CD플레이어				
활동 내용 및 방법	교사·학생 활동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점검 :학생들은 교과서를 준비하고 바르게 앉아 인사한다. - 전시 학습곡 가창 : 전시에 학습한 ‘콜로라도의 달’을 파트로 나눠서 가창해본다. - 본시 학습목표를 제시 : 본시 학습목표를 인지한다. - 곡 감상 : 본시에 학습할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를 들려준다. - 협주곡 : 협주곡에 대해 알려주고 피아노 협주곡 이외에 다른 협주곡에는 어떤 곡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과제발표 : 전시에 과제로 내주었던 협주곡의 역사와 다악장 형식에 대해 발표해본다. - 곡 감상 : 곡을 다시 감상하면서 협주곡의 다악장 형식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고, 협주 형태에 대해 설명한다. - 감상느낌 발표 				
평가 기준	1. 곡을 들을 때 바른 자세로 주의 깊게 감상하는가? 2. 다악장 형식과 협주곡의 형태를 이해하면서 감상하는가?				

<표 1>과 <표 2>에서 보여 주고 있는 음악 감상 수업 지도안은 두산 교과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며,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된 음악 감상 지도안이다. 이 지도안은 선행 연구²⁰⁾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음악 감상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또 다른 심미적 교육철학을 연구한 논문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20) 신정은, 「엘리엇의 음악 만들기를 통한 효율적인 감상수업지도안: 고등학교 1학년 감상수업을 중심으로」, (경원대 교육대학원, 2008), p. 17

Ⅲ. 엘리엇의 음악교육철학

1. 엘리엇의 음악교육철학의 배경

엘리엇(David J. Elliott)은 현재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5년에 『Music Matters』라는 책을 통해서 음악교육계에 불꽃 튀는 철학 논쟁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는 1970년에 리머(Bennett Reimer)가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을 저술한 이래 미국과 캐나다의 음악 교육은 리머의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에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²¹⁾ 그동안 리머의 심미적 음악 교육론에 많은 철학자들의 크고 작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엘리엇처럼 20세기 후반의 미국 음악 교육 철학 분야를 주도하던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선 사람은 없었다.

리머를 중심으로 발달된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에 대하여 엘리엇이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진다.

첫째, 미학은 그 대상을 순수 예술 또는 예술 객체(artistic objects or products)로 한정함으로써 음악의 '과정적 측면'을 도외시 하였다.²²⁾ 모든 학문도 그렇겠지만 음악 역시 결과인 동시에 과정이다. 하지만 리머가 주장한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은 결과만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음악의 과정적인 것들은 보지 않는 측면을 비판하는 것이다.

둘째,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의 미학적 관점은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18-19세기에 순수 예술과 관련된 엘리트즘(elitism)과 관련이 있다²³⁾. 18-19세기에 음악을 감상의 대상으로 보는 귀족이나 부르주아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교양 있는 음악애호가들이 갖추어야 할 음악 감상 태도나 감상법을 기술한 것과 같은 측면을 갖고 있다.

21) 권덕원 외, 「음악 교육의 기초」, (경기: 교육과학사, 2005), p. 79

22) 위의 책, p. 79

23) 위의 책, p. 79

셋째, 심미적 교육론자들의 생각은 마치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처럼 다른 철학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²⁴⁾ 물론 엘리엇의 철학에도 허점은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에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해준 측면에서는 음악교육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엘리엇이 제시한 실천주의 음악교육 철학을 이해하고 ‘음악하기’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음악 감상 지도방안을 연구해 볼 것이다.

2. 주요전제

가. 실천주의 음악교육 철학

엘리엇은 철학이란 단순한 논점의 집합체가 아니라, 체계적 의구심, 논리적 분석 또는 분석적 사고와 관련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²⁵⁾ 그는 철학을 행위적 수단으로 여기고, 철학적이 된다는 것은 엄격하고, 논증적이고, 분석적이며 호기심을 가지고 대상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는 비판적 사고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함을 강조하였다.²⁶⁾ 그는 철학의 결과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라 여기고 있다.

엘리엇의 음악교육철학에서는 사회와 상황을 고려한 ‘음악 만들기’(music making) 또는 ‘음악하기’(musicng), 이를 통한 다문화주의 적인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 등이 그가 주장하는 철학의 핵심 내용이다.

그는 ‘행위’(action)는 인간의 모든 ‘의식’(consciousness)이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체’(reality)라고 전제한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의식과

24) 권덕원 외, 「음악 교육의 기초」, (경기: 교육과학사, 2005), p. 79

25) Elliott, David J, 「*Music Matter: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Y: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6

26) 위의 책, p. 7

는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 속에서 구현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로는 뛰어난 기량으로 연주를 보여주는 명연주자에게서 볼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음악은 무엇인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음반인지, 그들이 창작해 낸 음악악보인지,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의 음악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 심지어 그들의 연주를 녹화해 놓은 비디오도 그들의 음악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명연주자들의 음악은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있는 것이며, 그들이 어디 어느 곳에서 연주하던 그 연주를 할 때마다 그들의 음악의 일부가 듣는 청자들에게 청각적인 형태로 다가온다. 이렇듯 엘리엇은 음악을 하는 행위에 음악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엘리엇은 음악이 기록된 음악들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악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음악들이 정형화 되어버린 의식이 굳어져 버린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음악적 실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록된 음악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음악적 행위가 음악이고, 음악은 다양한 인간의 실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다문화적이라고 엘리엇은 말한다.

나. 음악성

엘리엇의 ‘음악성’(musicianship)은 5가지의 음악적 지식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과정적 음악 지식’(procedural musical knowledge), ‘형식적 음악 지식’(formal musical knowledge), ‘비형식적 음악 지식’(informal musical knowledge), ‘인상적 음악 지식’(impressionistic musical knowledge), 그리고 ‘통제적 음악 지식’(supervisory musical knowledge) 등이다.²⁷⁾

첫 번째로 ‘과정적 음악 지식’이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음악적 행위를 할

27) 권덕원 외, 「음악 교육의 기초」, (경기: 교육과학사, 2005), p. 83

때마다 그 행위에 일련의 시리즈처럼 따르는 지식과 같은 것이다. ‘과정적 음악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것이고, 음악적 행위를 할 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엘리엇은 ‘과정적 음악 지식’의 중요성을 스키 타기의 예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스키를 탈 때 스키를 타는 행위의 과정에서 순간순간마다 지식이 필요하고, 그 때마다 지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음악회에서 연주자가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 그가 그 음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지식들이 그의 설명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그의 말이나 글로 다 표현될 수 없는 지식인 것이다.

두 번째로 ‘형식적 음악 지식’은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언어적 형태로 나타나는 지식으로 각종 이론서적으로 나타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전달될 수 있으며, 음악사, 음악이론 등 음악적인 언어나 기호로 설명되는 것이다. 엘리엇은 이러한 ‘형식적 음악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가치가 적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언어로서 표현되는 지식은 분명히 그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로 ‘비형식적 음악 지식’은 형식적 음악 지식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될 수 없는 음악적 지식을 모두 총칭하는 의미이다. 이것의 예로 숙련된 음악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레슨 노하우는 그들이 이론서적에서 배운 것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들이 실제로 음악을 하면서 터득한 것들이다. 특히 악기를 연주할 때 좋은 소리가 나는 방법, 제대로 된 터치 방법, 음악적으로 표현해 내는 방법 등은 그들이 오랜 시간 연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일궈낸 산물인 것이다. 엘리엇은 ‘비형식적 음악 지식’이 일종의 상황적 지식이며, 실제로 음악을 만들어가면서 상황에 따라 생겨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대처 지식들을 말한다고 보았다.

네 번째로 ‘인상적 음악 지식’은 음악 행위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나 느낌 속에 있는 직관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엘리엇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은 인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전제에는 인간의 사고와 느

김을 분리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 느낌과 사고는 상호보완적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다른 제 3자에게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 선입견을 갖게 되듯이 음악에 대한 느낌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측면은 우리의 의식적, 인지적 작용이 그 배후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적 음악 지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인지(meta-cognition)’, ‘상위 지식(meta-knowledge)’라고 부르는 것²⁸⁾들을 말한다. 이것은 즉 자신이 한 행동들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적응시키고, 균형을 잡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나 지식을 의미한다. 이것 또한 비언어적이고 상황적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연주자는 자신의 연주를 매번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부족한 점들을 바로 잡고, 청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반응과 행동을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하며, 이 지식은 연주자에게 꼭 필요한 지식으로 이 지식이 없으면 훌륭한 음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엘리엇은 이 5가지의 음악적 지식이 모두 골고루 발전했을 때 음악성이 비로소 올바르게 발전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엘리엇의 음악성의 개념은 크게 ‘행위 중심적’, ‘과정 중심적’, ‘상황 중심적’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행위 중심적’은 음악성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음악의 행위 즉, ‘음악하기’(musicizing)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엘리엇은 보았다. 따라서 음악성 또한 음악을 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이것은 음악 교육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로 ‘과정 중심적’인 음악성은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음악을 하는 순간순간 마다 자기 자신의 음악을 관찰, 평가, 수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음악을 해보지 않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28) 권덕원 외, 「음악 교육의 기초」, (경기: 교육과학사, 2005), p. 85

셋째로 ‘상황 중심적’은 엘리엇의 말을 빌리자면 “음악성이란 어떤 특정 음악의 기준과 전통과 관련하여 그 음악을 직접 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알아가는 능력”이라고 했다.²⁹⁾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음악의 맥락을 떠난 음악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재즈음악은 재즈음악에, 서양음악은 그 음악 안에, 전통음악은 전통 음악 안에 그 맥락이 존재하듯이 제3의 음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음악성은 일부의 천재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말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엘리엇의 관점은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에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과목은 중시하면서 음악, 미술 등의 예술적 과목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셈이다.

다.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엘리엇에게 있어서 음악의 개념은 ‘이 세계에는 다양한 음악이 존재하며, 그 각각의 음악은 각각의 전통과 문화적 맥락 위에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있다.³⁰⁾ 엘리엇은 다양한 음악문화에 참여하는 행위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작품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며, 이런 음악 활동의 참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끔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에서 엘리엇은 다양한 문화를 접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가장 좋은 음악은 존재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듯이 어떤 음악이든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세계 나라의 어느 곳이든 그 민족들은 각각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문화의 맥락에 부합되는 음악을 창작·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음악들은 그 사회의

29) 권덕원 외, 「음악 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5), p. 84

30) Elliott, David J, 「*Music Matter: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Y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129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 서양 음악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음악에는 그 시대의 관습, 신념, 가치들이 들어가 있다.

엘리엇은 우리가 세계의 어떤 민족의 전통적인 관습을 무시할 수 없듯이 각각의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는 음악들은 서로 간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따라서 어떤 음악이 다른 음악보다 더 가치 있다거나 중요하다는 결론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³¹⁾ 우리는 스스로 어떤 음악이 가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며, 다른 민족의 음악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의 음악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높이 사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의 음악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음악 만들기'

‘음악 만들기’(music making)나 ‘음악하기’(musicing)라는 말은 원어로 music making, musicing, 또는 musicking 등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용어는 음악을 대상으로만 간주해 오던 전통적 음악교육철학에서 벗어나 음악을 하는 행위자가 음악을 가지고 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음악으로 여기는 행위로 음악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이다.

1990년 스몰(C. Small)이 『Musicking』이라는 저서에서 음악의 행위적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musicking’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고, 1995년 엘리엇(D. Elliott)이 『Music Matters』에서 ‘music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행위로서의 음악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고, 동시에 ‘musicing’이라는 용어가 음악 교육 분야에서 음악의 특수성과 고유의 가치에 대해서 사용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엘리엇은 다문화주의 적인 관점에서 각 나라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이것

31)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5), p. 81

을 고려한 ‘음악 만들기’의 음악적 의미구성 등이 그가 주장하는 철학의 핵심이다.

엘리엇은 ‘음악 만들기’의 형태로서 작곡, 즉흥연주, 연주, 음악적 해석, 편곡 등 다섯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³²⁾ 이러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다섯 가지 형태의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음악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적 과정 속에 음악 감상이 이루어질 때 능동적 인지과정을 통해 음악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³³⁾

3. 엘리엇의 음악 교육

엘리엇에게 있어서 음악 교육의 목적은 크게 ‘음악하기’와 ‘음악성의 발달’이 두 가지 개념으로 함축³⁴⁾되는데,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음악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들어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에 교육자들이 음악을 학습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단지 어떤 목적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비판 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음악 하기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음악성이 발달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엘리엇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적 실행에 참여시키되, 가능한 한 '진짜의 경험'(authentic experience)을 강조하였다.³⁵⁾ 이는 학습자들에게 진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술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려 함이고, 음악적 경험이라는 것은 기존의 심미적 경험보다 더 넓고 풍부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32) 신정은, 「엘리엇의 음악 만들기를 통한 효율적인 감상수업지도안: 고등학교 1학년 감상수업을 중심으로」, (경원대 교육대학원, 2008), p. 38

33) 위의 책, p. 38

34)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5), p. 85

35) 위의 책, p. 85

엘리엇의 교육론은 학습자들이 그저 음악을 앉아서 듣고 혼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악기를 연주해 보기도 하고 소리를 내가면서 음악을 학습자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음악 하는 행위가 없으면 음악성의 발달도 없기 때문에 음악 교육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학생들에게 바른 음악 교육을 제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음악적 자극'(challenge)과 '음악성'과의 관계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어떤 학습자의 음악성에 부합되는 '음악적 자극'을 주면, 그 학습자의 '음악성'은 최대한으로 발전되며, 그 학습자 스스로도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너무 어려운 수준의 자극을 주면 안되고, 너무 낮은 자극을 줘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 학습자의 수준을 잘 고려하여 그 음악성의 수준에 적합한 자극을 주었을 때 학습자의 '음악성'이 발달된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기존의 음악 교육과정이 문서화된 것(written objectives)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³⁶⁾ 엘리엇은 지식이라는 것이 말이나 글, 즉 문서화 될 수 있는지에 강한 의문을 가졌다. 왜냐하면 문서화 될 수 없는 일부의 지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엇이 주장하는 것은 “커리큘럼은 문서화된 계획이 아니라, 교사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⁷⁾ 즉 상황에 따라 학습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을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은 바로 교사 자신이라는 것이다. 엘리엇은 전통적인 교수방법에 의존하려는 현재의 일부 교사들을 꾸짖는 것이다. 특히 음악 교육이라는 것은 문서화되기 힘들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교사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로 음악 교육에 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6)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5), p.86

37) Elliott, David J, 「*Music Matter: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Y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12

이쯤에서 엘리엇의 교육철학이 음악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려고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음악 교육이 시작된 배경은 ‘음악인 양성’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은 인근의 교회와 연관되어 시작되었다고 본다. 19세기말 아동 중심의 교육관이 미국 음악 교육에 영향을 주기 전까지, 대부분의 음악 교육은 시창 기능을 훈련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삼았고, 이러한 시창 훈련은 연주를 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³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렇게 아동 위주의 교육이 펼쳐지면서 아동들이 음악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럽게 음악 감상 교육을 중요시하도록 일깨워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연주를 강조하였고, 그 전통은 아직까지도 교육의 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풍토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그전까지 간간히 논의되던 ‘음악 교육의 고유성’ 문제는 점점 ‘심미적 음악 교육철학’으로 집약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70년에 출판된 리머의 『음악 교육 철학』이라는 책을 통하여 ‘심미적 음악 교육철학’은 중요한 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³⁹⁾. 이 철학은 학생이 음악을 들을 때 내면적인 느낌을 중시하는데, 엘리엇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고 느끼는 음악 감상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음악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음악하기’를 강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음악 과목을 개설하게 된 것 역시 찬송가를 잘 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연주를 중요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음악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야는 가창이다. 해방이후에 많은 학교의 음악 단체에서 합창이나 밴드부를 만들어 일부 학생들에게 연주의 기회를 넓혀 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입시 과열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나마도 사라지고

38) 권덕원, 「데이빗 엘리엇의 실행 중심의 음악 교육철학이 음악교육에 끼치는 영향」, (국악교육, 제17집), p.13

39) 위의 책, p.13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엘리엇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 학교에서는 특별히 음악 연주 프로그램을 위한 시간도 없을뿐더러 고등학교에서는 음악이 선택과목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의 철학이 우리 교육에 던지는 효과는 신선하다. ‘심미적 음악 교육철학’에 빠져있는 현 교육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시야를 넓혀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음악 교육과 관련된 시사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수업에서 ‘음악하기’의 질을 높이고 연주프로그램의 확대를 강조하여야 한다. 데이빗 엘리엇은 ‘음악하기’라는 것이 음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모든 음악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음악 연주에 참여하여야만 학습자들의 음악성이 발전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음악 교육의 현실을 보면 사실 학습자들이 연주를 해 볼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쉬운 예로 학교에는 많은 악기들이 비치되어 있지만, 그 악기들을 교사들은 직접 만져보지 못하게 한다. 악기들을 가지고 놀면서 파손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학교 수업 때 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극단적으로는 수행평가 때 만져보는 것이 다일 수도 있다. 연주 수업이 음악 수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적당히 배당할 때 학습자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커질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 음악이라는 것이 학교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현재 교육과정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엘리엇은 살아가는 동안 행위 하는 자체가 곧 지식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음악시간과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음악시간에 학습자들은 노래 부르고, 창작하고, 악기를 연주해 보는 등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음악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학습자들에게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활동하는 과정에 얻어가는 지식이 언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일지라도 그들이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연구자는 생각한다.

세 번째로 엘리엇은 ‘다문화 주의’를 바탕으로 한 음악관을 중요시 하였다. 현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되는 것도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이다. 세상에는 저마다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각 민족들의 음악은 서로 비교될 수도 없고 각각 고유의 의미를 갖는다. 다른 민족의 문화를 사랑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고 보존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요즘 들어 교과서에서 국악의 비중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음악의 중요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여전히 서양 음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음악의 뿌리를 찾기 위해선 음악 교육학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네 번째로 엘리엇이 음악의 교육과정을 문서화시키지 못함을 강조하였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음악적인 것에는 결코 글이나 말로 설명되지 못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사 스스로 연구하고 방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문서화된 교육과정에 의지하기 보다는 독특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방법을 보충해 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악이라는 교과는 학습자들이 꼭 배워야 할 필수 교과임을 인정해야 한다. 엘리엇은 음악적 능력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능력임을 분명히 하였다⁴⁰⁾. 많은 사람들이 음악성이라는 것은 일부 뛰어난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아이들에게만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성을 키워나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의 평등성은 사라지고 음악에 흥미를 느끼는 많은 학습자들은 일주일에 고작 1-2시간으로 자신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목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0) 권덕원, 「데이빗 엘리엇의 실행 중심의 음악 교육철학이 음악교육에 끼치는 영향」, (국악교육, 제 17집), p.19

IV. 엘리엇의 교육철학을 적용한 음악 감상 지도 방안

본 장에서는 엘리엇의 음악교육철학과 ‘음악 감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알게 된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자가 수업 안을 구성할 것이다. 엘리엇은 음악의 본질이 음악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고, 음악이 대상의 집합체⁴¹⁾라는 생각으로부터 음악교육의 목표가 음악작품의 형식적 외형에 관심을 집중시켜 심미적으로 음악을 감상⁴²⁾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에 대해 음악교육의 목표가 모든 학생들이 실제로 음악을 해보는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음악 감상에 있어서 심미적 음악교육을 펼치는 것과는 반대로 연주, 즉흥연주, 지휘 등과 같이 음악적 행위를 중시하고, 음악 감상이 이러한 활동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수업 안을 구상해보고,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이번 장에서는 연구해 보려고 한다.

본 장에서 음악 감상 수업안을 구상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지역, 나라, 문화에 관계없이 다양한 음악들을 감상하고 접해볼 수 있도록 편성해 보았다.

둘째, ‘음악하기’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접해 음악 감상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제시했으며, 음악 분야뿐만이 아닌 다른 신체적 활동까지 접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평가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스스로 관찰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업 전반에 걸쳐 교사와 학습자간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의 질을 향상시켰다.

넷째, 이 수업지도안의 대상은 중학교 3학년의 학생들에 맞게 이루어졌다. 본

41) Elliott, David J, 『*Music Matter: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Y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33

42) 위의 책, p.33

수업지도안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일 뿐이지만, 연구 자료를 통해서 전 학년의 음악 감상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3> 동양민요 ‘소매꽃’, ‘코끼리 바나나’ 감상 수업 지도안

단 원	4. 고향 그리워	차시분량	1	시간	45분
학 습 목 표	1. 동양의 민요를 듣고 부르면서 각 지역 민요의 특징을 느껴본다. 2. 그 나라의 민속 악기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민속악기로 연주해 본다. 3. 생활 속의 음악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들어보고, 민속 음악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도 해본다.				
제제곡	‘소매꽃’, ‘코끼리 바나나’ (두산 중학교 3학년, p.39)				
준비물	멀티미디어, 소형 오디오 카세트, 강단 활용, 감상일지				
활동 내용 및 방법	교사·학생 활동			유의사항	
	-우리나라 민요 ‘강강술래’를 감상한다.(동작이 들어간 동영상을 감상시킨다.) -‘소매꽃’과 ‘코끼리 바나나’를 감상한다. 1. 감상한 후에 이란의 민요와 스리랑카 민요에는 각각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 학생들이 느낀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2. 곡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의미를 학생들이 느낀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 다음, 교사가 제목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3. 나라들의 사는 특성상 음악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나라의 위치와 특징들을 알아보게 하고, 토론해 본다. 4. 우리나라 민요와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이야기 해 본다. -동양 각 나라의 악기들을 알아본다. -곡의 리듬에 따라 우리나라 악기인 ‘장구’를 연주해 보면서 가창을 해보고, ‘단소’로 멜로디를 연주해 보도록 한다. -원곡을 다시 감상하면서 모듬을 나누어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해보도록 한다. -모듬별로 발표를 시키고 다른 모듬들은 발표하는 모듬 주위로 앉아서 민요를 불러준다. -실제 민속춤을 추는 다양한 나라들의 민속춤의 동영상을 보여준다.			토론을 할 때는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도해낸다.	
평가 기준	1.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과 다른 동양의 민요의 특징을 비교하여 그 특색에 맞게 노래 부를 수 있는가? 2. 리듬의 변화에 따라 그 음악에 맞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표 3>에서 보여 지는 감상 수업 지도안의 세부적인 수업 활동지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활동 목표

- (1) 동양의 민요를 듣고 부르면서 각 지역 민요의 특징을 느껴본다.
- (2) 그 나라의 민속 악기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민속악기로 연주해 본다.
- (3) 생활 속의 음악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들어보고, 민속 음악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도 해 본다.

2. 준비물 : 멀티미디어, 소형 오디오 카세트, 강단, 감상일지, 단소, 장구

3. 활동내용 및 방법

- (1) 도입 : 동기유발
 - 제재곡을 감상한다.
 - 학생들에게 곡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곡의 느낌과 어떤 곡일지 유추해 보도록 질문을 던진다.
 - 제목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의미를 상상하게 한 후, 교사가 제목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 (2)본론 : 전개
 - 동양의 민요와의 차이와 비슷한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요인 ‘강강술래’를 감상해 본다. : 강강술래 동작이 들어간 동영상 감상시킨 후에 학생들이 따라서 해보도록 유도한다.
 - 다시 제재곡을 감상한 후에 이란 민요와 스리랑카 민요의 특징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해 본다. : 특징을 알아낸 후에는 동양의 민요와 유럽의 민요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본다.

- ‘소맥꽃’ 과 ‘코끼리 바나나’ 곡을 구음을 하면서 리듬을 읽혀 본다.
- 가사를 넣어서 노래 불러본다.
- : 이 때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리듬을 쳐주고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리듬감을 읽힌다.
- 동양의 악기들에는 어떠한 악기들이 있는지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알아보고, 소리를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다.
- : 악기 사진이나 소리는 교사가 사전조사해서 학생들과 맞추기 게임을 통해서 재밌게 수업진행을 한다.
-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장구로 리듬을 치고, 한 사람은 단소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 이 때 단소에 없는 소리는 교사가 다른 음으로 대체 하도록 악보를 만들어 나누어 준다.
- 5-6명씩 조를 이루어서 곡의 분위기에 맞는 신체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조별 발표를 해본다.

(3)마무리 : 정리

- 각 모듈별 발표를 다 마친 후에 좋았던 점들을 서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점수판을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1등 모듈을 가려낸다.
- 교사는 작은 상품을 준비해서 모든 모듈들에게 격려 상품을 나누어 주어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표 4> ‘헨델의 메시아’ 감상 수업 지도안

단 원	1. 함께 하는 즐거움	차시분량	2	시간	45분
학 습 목 표	1. 성부 간의 리듬 및 가락의 통일과 대조를 파악하면서 듣는다. 2. 썸여림의 변화가 악곡의 흐름에 끼치는 영향을 느끼면서 듣는다. 3. ‘할렐루야’ 곡을 리코더 합주로 불러본다. 4. 다양한 종교음악들을 감상해 보도록 한다.				
제재곡	메시아 中 ‘할렐루야’ ‘아멘’ (두산 p.11)				
준비물	멀티미디어, 피아노, 오디오 카세트, 리코더				
활동 내용 및 방법	교사·학생 활동			유의사항	
	-제재곡을 감상하면서 바로크 시대의 상황적 분위기를 예측해본다. :교사는 어떤 작곡가의 곡인지 질문을 해보고, 작곡가의 이미지를 학생이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과제발표를 통해서 작곡가에 대해 조사해 온 것을 발표해 본다. -할렐루야와 아멘의 가사를 읽어보면서 음악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파악해 본다. :과제로 메시아에 대해 조사해 온 것을 발표해 본다. -제재곡 부르기 : 감상 곡의 리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음악을 파트를 나눠 학생들이 음악의 썸여림을 알고 부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재곡의 선율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이 리코더로 선율부를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1.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서로 피드백하며 연습할 수 있도록 교사는 시간을 준다. 2.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2명의 짝 중에 한명은 노래를 불러보고 한명은 리코더로 선율을 연주하도록 연습시킨다. -여러 종교와 관련된 음악들을 감상해보고 각각 종교 음악들이 주는 느낌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발표하도록 한다. -다시 원곡을 감상해보고, 원곡이 주는 느낌과 학생들이 연습한 합주와 노래를 녹음하여 감상해 보도록 한다. -‘할렐루야’와 ‘아멘’ 연주 동영상으로 감상한다.				
평가 기준	1. 바로크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곡을 감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가? 2. 곡에서 나타나 있는 썸여림을 잘 파악하여 곡을 리코더로 연주할 수 있는가? 3. 제재곡을 감상한 느낌대로 곡을 잘 살려 부를 수 있는가?				

<표 4>에서 보여 지는 감상 수업 지도안의 세부적인 수업 활동지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활동 목표

- (1) 성부 간의 리듬 및 가락의 통일과 대조를 파악하면서 듣는다.
- (2) 셈여림의 변화가 악곡의 흐름에 끼치는 영향을 느끼면서 듣는다.

2. 준비물 : 멀티미디어, 소형 오디오 카세트, 강단, 감상일지

3. 활동내용 및 방법

(1) 도입 : 동기유발

- 바로크 시대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 주면서 바로크 시대의 특징들을 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할렐루야’ 곡과 ‘아멘’ 곡을 종교와 관련된 영상과 함께 보여준다.

(2)본론 : 전개

- 음악사적 시대별로 핵심적인 특징들을 알아보고, 바로크 시대의 특징을 되짚어 보고, 곡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볼 수 있다.
- 작곡가의 다른 곡들도 조금씩 감상해 보고, 작곡가의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할렐루야와 아멘 가사를 리듬에 맞춰 읽어보면서, 가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 계명창을 통해 리듬을 더욱 정확히 익혀본다.
- 제재곡의 선율부만 따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리코더로 선율 부를 연습하도록 한다.

: 이 때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서로 피드백 하면서 연습한다. 연습이 끝난 후에는 한 명씩 파트를 바꿔가며 한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한사람은 리코더 연주를 하는 형식으로 연습을 한다.

- 다양한 종교들의 음악을 감상해 보고, 각각 종교음악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제재곡을 다시 감상해 보고, 추천 방식을 통해 몇 팀을 선발해서 친구들과 앞에서 발표시켜본다.

: 발표 후에는 반드시 학생들 간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스스로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한다.

(3)마무리 : 정리

- 종교 음악의 감상을 통해서 각 종교 음악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음악의 미를 발견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시각을 열어주도록 각 종교 음악의 아름다운 부분을 발표시켜 보도록 한다.

<표 5>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감상 수업 지도안

단 원	음악감상	차시분량	2	시간	45분
학 습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대 음악의 분위기와 가창과 기악의 조화를 느끼며 감상한다. 2. 근대·현대 음악의 특징을 이해한다. 3. 칼 오르프의 업적에 대해 알아보고, ‘카르미나 부라나’에 연주된 악기 외에 다른 악기로 곡을 새롭게 만들어 본다. 4. 곡의 분위기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제제곡	‘카르미나 부라나’(지학사 p.70)				
준비물	멀티미디어, 소형 오디오 카세트, 강단 활용, 감상일지, 타악기				
활동 내용 및 방법	교사·학생 활동			유의사항	
	<p>-‘카르미나 부라나’곡을 감상하면서 어떤 시대의 곡인지 추측해 보도록 한다.</p> <p>:교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각 시대별로 특징들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학습하게끔 한다.</p> <p>-작곡가의 업적을 이야기 해보고 오르프가 평소에 강조했던 타악기가 어떻게 곡에 적용되었는지 알아본다.</p> <p>-‘카르미나 부라나’악보를 나눠주고 곡에 쓰이는 다른 타악기들 말고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악기를 사용하여 새로운 분위기의 곡을 만들어 보도록 모둠별 창작 시킨다.</p> <p>: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각 모둠별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켜보는 입장이 되어야 하며, 생활 속의 악기들은 전시에 수업시간에 모둠별 토론을 통해서 각자 알아서 악기를 구해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악기이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p> <p>-각 모둠별 발표를 통해서 창의성을 토대로 다른 모둠들이 평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p>-제재곡을 다시 감상하면서 곡이 전개되어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신체 표현을 통해 짧은 연극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 시킨다.</p> <p>-연극 발표를 통해서 학생들의 모둠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연주 동영상 감상을 통해 곡의 웅장함을 다시 한 번 느껴보도록 한다.</p>			<p>-모듬별 발표 수업이 이루어질 때는 다른 모듬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감상하거나 볼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해 주어야 한다.</p> <p>-창의성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조언이나 피드백을 해 줄수는 있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 안 된다.</p>	

평가 기준	1. 현대 음악의 특징과 오르프가 강조한 신체타악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곡을 감상하고 있는가? 2. 창의적인 수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모듈별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가? 3. 생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악기들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	--

<표 5>에서 보여 지는 감상 수업 지도안의 세부적인 수업 활동지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 수업은 2차시에 걸쳐 수업이 진행된다.

<1차시>

1. 활동 목표

- (1) 현대 음악의 분위기와 가창과 기악의 조화를 느끼며 감상한다.
- (2) 근대·현대 음악의 특징을 이해한다.

2. 준비물 : 멀티미디어, 감상일지, 소형 오디오 카세트

3. 활동내용 및 방법

(1)도입: 동기유발

- 현대음악과 친숙해지기

: 교사는 현대음악 중 특이하고 이색적인 곡들을 뽑아 학생들이 현대음악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상시킨다.

(2) 본론 : 전개

- 음악을 감상한 후에 학생들은 현대음악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각자의 상상력에 따라 발표를 해본다.

- 교사는 현대음악의 특징에 대해 학습시키기 이전에 각각의 시대별로 어떠한 음악들이 있는지 또한 각 시대별 음악들이 가지게 되는 특징적인

것들을 부분적인 음악 감상을 통해서 학습시킨다.

- 교사는 현대음악이 가지고 있는 음계의 특징을 이야기 해주고, 학생들이 현대음악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현대음악들을 감상시킨다.
- 오르프가 전 생애를 걸쳐 음악교육 분야에서 남긴 위대한 업적들을 토론해 보고, 신체타악기 활용 예를 보여주기도 한다.

(3)마무리 : 정리

- 제재곡을 다시 감상한 후에 모둠을 5~6명 단위로 짜준다.
- 차시 과제 : 모둠별로 곡을 감상한 후에 곡에 쓰이지 않는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타악기를 이용해서 곡을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어 보게 하고, 곡의 분위기에 따라 이야기를 구성하게 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연극으로 만들어 지게 과제를 내준다.

<2차시>

1. 활동 목표

- (1) '카르미나 부라나'에 연주된 악기 외에 다른 악기로 곡을 새롭게 만들어 본다.
- (2) 곡의 분위기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2. 준비물 : 멀티미디어, 소형 오디오 카세트, 강단, 감상일지

3. 활동내용 및 방법

- (1) 도입 : 동기유발
 - 모둠별로 앉아서 제재곡을 다시 감상해 보도록 한다.
 - 각각 모둠별로 토론과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해 내고 이야기

를 만들어 내도록 유도한다.

- 교사는 모듈별로 돌아다니면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준다.

(2)본론 : 전개

- 각 모듈별 대표들이 먼저 나와서 조원들과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냈는지 얘기하고 모듈별로 어떤 이야기로 전개 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한다.

: 이 때 각 모듈들은 발표 또한 특색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발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팀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도록 교사는 진행자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모듈들이 발표할 때 다른 모듈들은 감상일지에 간략하게 다른 모듈들의 내용을 적어가면서 수업에 소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3)마무리 : 정리

- 각 모듈별 발표를 다 마친 후에 좋았던 점들을 서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점수판을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1등 모듈을 가려낸다.
- 교사는 작은 상품을 준비해서 모든 모듈들에게 격려 상품을 나누어 주어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V. 결론 및 제언

어느 과목이든 교사가 교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함은 분명하다. 특히 음악이란 과목은 지금 현재 주요과목 외의 주변과목이 되어 버린 지 오래고, 그러한 관념 속에 고등학교에서는 음악이 선택과목이 되어 버린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음악은 오랜 기간 동안 인간과 함께 해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의 전통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음악이 인간에게 주는 생활의 윤택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은 입시위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예술과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전혀 흥미를 못 느끼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재미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단연 우리 생활에서 음악이 주는 기쁨은 분명히 있다. 모든 교사들이 똑같은 수업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음악 감상 수업에서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은 더욱더 음악의 가치와 본질을 고찰해야 하며,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인 청소년 시기에,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대중음악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바른 문화를 선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제시된 수업지도안은 본 연구자가 엘리엇의 ‘음악하기’를 연구하여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 이지만, 방법에 따라 더 다양하게 교사들이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의 음악들을 살펴봄으로 청소년 시기에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의 특징들과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작은 나라로 소외되어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이라는 예술적 장르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개인으로서 세계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음악성’이라는 것은 다른 주요과목처럼 외우고 습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얻어지게 되는 하나의 지식 같은 것이다. ‘음악성’이라는 것이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임을 알고,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음악성이라는 것이 충분히 개발되어 질 수 있다.

셋째, ‘음악하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음악 감상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음악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교사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능동적인 학습이 되어 수업이 더욱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음악 감상 수업이 더욱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악곡 선정에 할 때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참신하고 적절한 악곡이 선정되어야 한다. 악곡 선정은 반드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에 있는 악곡들을 골고루 선정해야 하며, 특히 현대 음악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고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현대 음악의 감상도 반드시 필요할 부분이다. 또한 음악 감상이 심미적 체험에만 그치지 않고 행위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음악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교사가 진행해야 음악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들까지 음악의 중요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음악의 가치를 바르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된다.

음악 수업에서 음악 감상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취급되어진 분야이기도 하다. 이것은 많은 교사들이 교육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이다. 학교가 학습자들이 사회로 나가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이라면, 그 사회로 나가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중개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사들은 더욱 많은 연구와 학습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혜경(2009). 효과적인 음악 감상수업을 위한 음악교과서 연구 분석 - 7학년 9종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9).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 교과서.
- 권덕원(1999). 데이빗 엘리엇의 실행 중심의 음악 교육 철학(Praxial Philosophy)이 음악 교육에 끼치는 영향. 국악교육, 제 17집.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08).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김승일(2007). 클래식 음악 알아듣기. 서울: 예일출판사.
- 민은기(2000). 한국 청소년의 음악교육 실태. 서울: 도서출판 예술.
- 박은실(2001). 리머와 엘리엇의 음악교육 철학 비교. 음악교육연구, Vol.20 No.1, pp. 1-21.
- 백영미(2009).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청소년 음악 감상의 효과적인 지도에 관한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광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2002). 중학교 음악3. 서울: (주)두산.
- 임미경(2002).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벨로체.
- 윤명원, 김영희(2002). 중학교 음악3. 서울: (주)지학사.
- 최은혜(2005). 음악 감상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음악 교과내용 중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충남 :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석문주, 권덕원, 최은식, 함희주(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송진아(2005). 효과적인 음악 감상 지도법 연구 : 고등학교 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유진(2005). 음악하기(Musicing)고찰을 통한 음악 감상 수업안 연구: D. Elliott의 Music Matters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신정은(2008). 엘리엇(D. Elliott)의 음악 만들기(music making)를 통한 효율적인 감상수업지도안 연구. 서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세문(1964). 음악 감상교육. 서울: 문영문화사.
- Hopper, C. R. (1984). 음악교육론.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Elliott, D. J.(1995).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onny, H. L.(2006). 음악과 마음. 최미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Miller, H. M.(1981). 음악 감상을 위하여. 양일용 역, 서울 : 태림출판사.

